

## 경사노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

###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에 입장문 발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

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6.7)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노



2월 21일 위원회를 내방한 한국노총 신임 집행부 김동명 위원장(우)과 인사하는 김문수 위원장(좌)



6월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산적해 있는 노동개혁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반드시 대화에 다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7일 김동명 위원장 주재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결정은 5월 31일, 경찰이 전남 광양 포스코 하청 노조 농성장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전국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연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위원회는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여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위해 대화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여성·지역·기업 노조 및 단체 등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eslc](https://www.eslc.go.kr)

# 김덕호 상임위원, “최저임금 결정,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공감받아야”

이데일리·이데일리TV·대한경영학회 주관 ‘제 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 축사



김덕호 상임위원은 6월 12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대한경영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만큼 그 논쟁이 뜨거운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하며,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저임금’을 주제로 진행되어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참석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윤동열 대한경영학회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고임금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ESIC](#)

